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1호 【루게 제23033호】주제 99(2010)년 3월 22일(월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쑤말리 싸이나 손동지**

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장건 5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귀당의 위대한 령도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은 창건후 지난 55년동안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통성변명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조직명도하였습니다.
오늘 라오스인민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의 훌륭한 령도 밑에 당 제8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국보위와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주제 99(2010)년 3월 2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프스타 리카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선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를 프스타 리카에서 창간사에서 8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간하신 선군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신다.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대상설비생산에서 위훈을 창조 대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인 대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터마다에서 총공세의 불길이 세차게 타탄되고있다.
공동주요를 피하는 심장마다에 받아들인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회전발전전설건설에 또다시 압축기들을 생산보장한데 이어 성장과 질적, 강성 등 철의 기치들에 보내준 명치 배봉기와 공작기계들의 조립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또한 탁월한 대항산본리가 홍남평에 도착하였다 격동적인 소식에 선들배를 조이고 더욱 분발해나선 1기 제1차 로동계급은 압축기조립을 하루빨리 따라세우기 위하여 분초를 닦으며 기세를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시대의 자력갱생선구자가 되자면 무엇보다 먼저 좋고 인내자도 재함으로 한 단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하여야 한다.》
아름차고도 방대한 대상설비 생산과제가 총공동계급의 어깨에 지워져있다. 금속,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보내준 대상설비들을 내놓고도 홍남평과

대상설비생산에서 위훈을 창조하는 대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각종 압축기들과 통풍기, 송풍기, 합성성량 등 수십대의 설비들을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우리의 어깨들의 짐이 무거울수록 내 조국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바로 이런 드높은 자각을 안고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나가고있다.
기업소의 일꾼들은 중요대상설비생산투쟁에서 주안을 확고히 틀어쥐고 대항산본,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적사업과 동종적인 전투취위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방조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적에 목형생산에 필요한 많은 통나무와 소재생산공과철을 마련한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대상설비들의 소재생산을 앞세우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목형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높은 기술능력과 책임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직장일꾼들은 기술공들의 긴밀한 연계를 모든 기능공들이 대상별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학습과 협의회를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이 나날에 대항산본

대항설비에 즈음하여 프스타 리카 주체사상연구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저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선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를 출판한다.

대항설비의 부속품 제조를 위하여 홍남가스화대 상공사장에 보낸 각종 압축기, 송풍기, 뿔뿔소재생산설비 등은 대항산본의 전진속도를 높여주고있다.
1주장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부딪히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생산조건을 자동적으로 마련하여 주강소재생산을 높이고있다. 용해작업반원들은 전기로에 대한 보수와 점검을 엄격히 진행한데 기초하여 집중용해의 방법으로 질 좋은 쇠물을 생산해 내고있으며 주형 2작업반원들은 새로운 혼사용에 의한 주조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소재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총공세의 불기는 가물, 제 판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1기제1차에서 압축기부속 품가공전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라닝만 작업반원들은 날개소재의 특성에 맞게 공구설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대항산본의 공작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가공속도를 증진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높이고있다. 날개 원판과 기발한 주형방법을 받아들여 실린더의 첫 소재를 성과적으로 부여했다. 양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혁신의 한걸음씩을 걸고있는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홍남가스화대 상공사장에 보낸 각종 압축기, 송풍기, 뿔뿔소재생산설비 등은 대항산본의 전진속도를 높여주고있다.
1주장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부딪히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생산조건을 자동적으로 마련하여 주강소재생산을 높이고있다. 용해작업반원들은 전기로에 대한 보수와 점검을 엄격히 진행한데 기초하여 집중용해의 방법으로 질 좋은 쇠물을 생산해 내고있으며 주형 2작업반원들은 새로운 혼사용에 의한 주조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소재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총공세의 불기는 가물, 제 판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1기제1차에서 압축기부속 품가공전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라닝만 작업반원들은 날개소재의 특성에 맞게 공구설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대항산본의 공작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가공속도를 증진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높이고있다. 날개 원판과 기발한 주형방법을 받아들여 실린더의 첫 소재를 성과적으로 부여했다. 양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혁신의 한걸음씩을 걸고있는 이들의 힘찬

대항설비에 즈음하여 프스타 리카 주체사상연구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저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선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를 출판한다.

대항설비의 부속품 제조를 위하여 홍남가스화대 상공사장에 보낸 각종 압축기, 송풍기, 뿔뿔소재생산설비 등은 대항산본의 전진속도를 높여주고있다.
1주장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부딪히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생산조건을 자동적으로 마련하여 주강소재생산을 높이고있다. 용해작업반원들은 전기로에 대한 보수와 점검을 엄격히 진행한데 기초하여 집중용해의 방법으로 질 좋은 쇠물을 생산해 내고있으며 주형 2작업반원들은 새로운 혼사용에 의한 주조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소재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총공세의 불기는 가물, 제 판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1기제1차에서 압축기부속 품가공전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라닝만 작업반원들은 날개소재의 특성에 맞게 공구설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대항산본의 공작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가공속도를 증진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높이고있다. 날개 원판과 기발한 주형방법을 받아들여 실린더의 첫 소재를 성과적으로 부여했다. 양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혁신의 한걸음씩을 걸고있는 이들의 힘찬

남새온실들을 새로 건설한다

사동구역에서
대원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기초과기공사를 힘있게 추진하여 이 단위처럼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사동구역안의 농장들에서는 남새모내기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달라붙어 온실의 기초과기공사를 끝내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원남새전문협동농장, 덕동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남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새온실건설을 끝낸 다음에 해당한 목표를 세웠다. 이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불면 불을 로고로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사동구역의 농촌들에 수백개의 현대적인 남새온실들이 건설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동구역 농업기술발전위원회에서는 수도시농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입니다.》
이런데 사동구역의 농촌들에 건설되는 태양열남새온실들은 원가가 적게 들고 겨울철에도 남새가 자라는데 알맞은 온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다. 또한 오이를 비롯한 열매남새들을 사육 보장하며 여러가지 품, 가을남새모종을 키우기 회적기에 토양에 벌 수 있어 되어 있다.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들에서 봄철영농작업과제를 수행하면서 남새온실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 맞게 공사계획을 바로세우고 로력조직과 자재보장사업을 짜고들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다.
구역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모으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남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새온실건설을 끝낸 다음에 해당한 목표를 세웠다. 이

남새온실들을 새로 건설한다

사동구역에서
대원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기초과기공사를 힘있게 추진하여 이 단위처럼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사동구역안의 농장들에서는 남새모내기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달라붙어 온실의 기초과기공사를 끝내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원남새전문협동농장, 덕동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남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새온실건설을 끝낸 다음에 해당한 목표를 세웠다. 이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불면 불을 로고로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사동구역의 농촌들에 수백개의 현대적인 남새온실들이 건설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동구역 농업기술발전위원회에서는 수도시농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입니다.》
이런데 사동구역의 농촌들에 건설되는 태양열남새온실들은 원가가 적게 들고 겨울철에도 남새가 자라는데 알맞은 온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다. 또한 오이를 비롯한 열매남새들을 사육 보장하며 여러가지 품, 가을남새모종을 키우기 회적기에 토양에 벌 수 있어 되어 있다.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들에서 봄철영농작업과제를 수행하면서 남새온실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 맞게 공사계획을 바로세우고 로력조직과 자재보장사업을 짜고들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다.
구역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모으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남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새온실건설을 끝낸 다음에 해당한 목표를 세웠다. 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정당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4차 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쁨을 안고 당신께 이 편지를 올립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불면 불후의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걸음 이끄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토론회에 커다란 관심을 들리시고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를 펼쳐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며,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조선식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시으로써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정당들에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4차 토론회 참가자들은 일치하게 세계의 자주화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칭송하면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 확신하면서 당신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4차 토론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패히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당수)
알베르도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0년 3월 13일
패히로시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4차 토론회

메히코에서 진행,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 지지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4차 토론회가 1일부터 13일까지 메히코에서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쿠바, 베트남,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브라질, 엘살바도르 등 40여개 나라의 100여개 정당, 단체인 대표 및 대표들 그리고 메히코로동당 지도부성원들과 당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이 나라 주제 여러 나라 외교대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미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는 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사상 전례없는 정치, 군사, 경제적 공세를 강화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토론회에 참가한 조선로동당

대요단을 열렬히 축하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미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는 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사상 전례없는 정치, 군사, 경제적 공세를 강화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토론회에 참가한 조선로동당

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시었다. 조선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6면으로 계속

각 지방 조직들에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콩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평양 영인 이식품공장에서 김진명 책임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 초석

오늘 우리 인민은 백두의 기상으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뜻깊게 계승하며 불멸의 영웅사사를 수놓아온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9(2000)년 3월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전환기적용을 열어놓은 역사적문헌이다. 로작에는 새 세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나오는 원칙적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정권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부단히 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갈 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시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줄기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이

르렀으며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과 건설의 기본원리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백두산은 김일성조선의 상징이며 선군혁명의 성산이다.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도, 위대한 선군정기도, 주체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예도 다 백두산과 결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가 집대성되어있고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절과 피가 스며있는 백두산을 모르고서는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 우리 시대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을 알아야 하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따라배워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 백두산지구를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적백두의 혁명전통을 세기대 혁명전통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어오셨다. 특히 새 세기를 앞둔 시기에 눈보라를 헤치시며 몹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현지지도하신것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조선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으로 이끌어가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기상과 의지의 징검다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들을 다시금 깊이 새기면서 백두의 혁명전통의 계승발전과 사상교양사업을 위하여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으로 걸맞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빛내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백두산지구를 후손들에게 길이 전할 혁명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소 한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령도자 백두산지구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님의 혁명활동사적지 집성지였으며 혁명의 성지이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거점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백두산지구를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고 우리 조국을 김일성조선으로 빛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를 혁명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실 용대한 설계를 펼쳐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건설의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618건설열력대를 비롯하여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새 천 년대에 들어선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건설을 위한 혁명전통을 세기와 새기를 이어 빛내이며 혁명의 불을 번함없이 들고나간다는 뜻을 세상사람들에게 독특히 보여주시려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 빛내이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오직 백두산지구는 조선혁명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백두산이름의 혁명전통을 세기와 새기를 이어 빛내며 혁명의 불을 번함없이 들고나간다는 뜻을 세상사람들에게 독특히 보여주시려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 빛내이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오직 백두산지구는 조선혁명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백두산이름의 혁명전통을 세기와 새기를 이어 빛내며 혁명의 불을 번함없이 들고나간다는 뜻을 세상사람들에게 독특히 보여주시려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언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백두의 기상으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뜻깊게 계승하며 불멸의 영웅사사를 수놓아온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9(2000)년 3월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전환기적용을 열어놓은 역사적문헌이다. 로작에는 새 세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나오는 원칙적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정권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부단히 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갈 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시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줄기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이

르렀으며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과 건설의 기본원리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백두산은 김일성조선의 상징이며 선군혁명의 성산이다.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도, 위대한 선군정기도, 주체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예도 다 백두산과 결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가 집대성되어있고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절과 피가 스며있는 백두산을 모르고서는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 우리 시대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을 알아야 하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따라배워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 백두산지구를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적백두의 혁명전통을 세기대 혁명전통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어오셨다. 특히 새 세기를 앞둔 시기에 눈보라를 헤치시며 몹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현지지도하신것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조선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으로 이끌어가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기상과 의지의 징검다리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빛내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9(2000)년 3월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전환기적용을 열어놓은 역사적문헌이다. 로작에는 새 세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나오는 원칙적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정권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부단히 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갈 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시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줄기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9(2000)년 3월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전환기적용을 열어놓은 역사적문헌이다. 로작에는 새 세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나오는 원칙적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정권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부단히 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갈 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시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줄기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9(2000)년 3월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전환기적용을 열어놓은 역사적문헌이다. 로작에는 새 세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나오는 원칙적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정권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부단히 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갈 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시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줄기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9(2000)년 3월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전환기적용을 열어놓은 역사적문헌이다. 로작에는 새 세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나오는 원칙적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정권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부단히 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갈 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시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줄기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9(2000)년 3월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전환기적용을 열어놓은 역사적문헌이다. 로작에는 새 세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나오는 원칙적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정권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부단히 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갈 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시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줄기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레헤탄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각하

나는 이란세화에 즈음하여 당신과 이란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세세에도 당신을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며 강위력한 이란을 건설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3월 21일 평양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도록

구성원장조성일위원회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 령한 전회와 이날 공장을 몹소 세워주시고 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조성일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선현지도기념일을

의 불멸의 자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이 과정에 공장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영평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로동동원 김 학 화

《로막치기전술》

미로를 느끼게 만들어놓은 다음 대부대부전으로 모조리 소멸할때 대한 명명을 하달하였다.

물 유인조가 조직되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적의 행군총대가 나타나자 그 전투에 일체적 불의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피하여 대부대부전에 잠복하고있는 가시덤불등판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을 알지 못한 적들은 무작정 그들의 뒤를 쫓았다.

미로를 느끼게 만들어놓은 다음 대부대부전으로 모조리 소멸할때 대한 명명을 하달하였다.

물 유인조가 조직되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적의 행군총대가 나타나자 그 전투에 일체적 불의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피하여 대부대부전에 잠복하고있는 가시덤불등판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을 알지 못한 적들은 무작정 그들의 뒤를 쫓았다.

미로를 느끼게 만들어놓은 다음 대부대부전으로 모조리 소멸할때 대한 명명을 하달하였다.

물 유인조가 조직되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적의 행군총대가 나타나자 그 전투에 일체적 불의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피하여 대부대부전에 잠복하고있는 가시덤불등판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을 알지 못한 적들은 무작정 그들의 뒤를 쫓았다.

미로를 느끼게 만들어놓은 다음 대부대부전으로 모조리 소멸할때 대한 명명을 하달하였다.

물 유인조가 조직되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적의 행군총대가 나타나자 그 전투에 일체적 불의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피하여 대부대부전에 잠복하고있는 가시덤불등판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을 알지 못한 적들은 무작정 그들의 뒤를 쫓았다.

당과 국가 간부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참관

참관자들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헌담은 그리움에 휩싸이게 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낸해 12월과 올해 3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기업소를 현지지도 하시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선봉에서 절로같이 내달려 철강제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아기를 들으며 격정을 금치 못했었다.

형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합참기업소를 찾은 그들은 혁명전통교양과 연혁소기일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나라의 급속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백두산3대장군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업소를 수습차에 왔으시고 나이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는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자료들은

합참기업소를 찾은 그들은 혁명전통교양과 연혁소기일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나라의 급속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백두산3대장군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업소를 수습차에 왔으시고 나이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는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자료들은

합참기업소를 찾은 그들은 혁명전통교양과 연혁소기일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나라의 급속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백두산3대장군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업소를 수습차에 왔으시고 나이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는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자료들은

합참기업소를 찾은 그들은 혁명전통교양과 연혁소기일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나라의 급속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백두산3대장군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업소를 수습차에 왔으시고 나이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는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자료들은

합참기업소를 찾은 그들은 혁명전통교양과 연혁소기일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나라의 급속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백두산3대장군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업소를 수습차에 왔으시고 나이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는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자료들은



합참기업소를 찾은 그들은 혁명전통교양과 연혁소기일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나라의 급속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백두산3대장군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업소를 수습차에 왔으시고 나이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는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자료들은

합참기업소를 찾은 그들은 혁명전통교양과 연혁소기일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나라의 급속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백두산3대장군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업소를 수습차에 왔으시고 나이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는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자료들은

합참기업소를 찾은 그들은 혁명전통교양과 연혁소기일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나라의 급속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백두산3대장군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업소를 수습차에 왔으시고 나이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는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자료들은

합참기업소를 찾은 그들은 혁명전통교양과 연혁소기일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나라의 급속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백두산3대장군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업소를 수습차에 왔으시고 나이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는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자료들은

북침전쟁연습은 평화통일위업에 대한 악랄한 도전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은 우리의 거둬오는 경도와 해내의 온 거리의 한결같은 반대에 불구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그 무는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간판밑에 감행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모험적인 불장난으로서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에 엄청난 해독을 끼쳤다.

북침전쟁연습은 우리 민족의 평화위업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우리 민족은 그 누구라 할지언정 평화를 절실히 바라고있다. 지난 세기 중엽의 시에 의해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그 때로부터 오늘까지 항시적인 전쟁위협에 시달리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야말로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강행한 평화지향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는 해소되고있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격화되고있다. 그것은 전조선에 대한 지체야말로 끈질기게 추구되고있는 침략적인 의사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이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리고있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 빈번히 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지난 세기 미제는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남조선에 하나의 거대한 북침전초기

기로 만들었으며 핵실험전쟁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위험한 북침전쟁소동들을 광범적으로 벌려놓으면서 평화와 위협하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미국과 피괴호전파들이 벌리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도 사실상 그러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의 연장이다.

올해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전쟁개시전이나 전쟁초기에 공중타격무력과 특수전병력을 리용하여 우리의 전략적수단들과 거점들을 《정밀타격》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지상투력을 《북진》시키는데 내용의 《신년합작전계획 5 0 1 2》와 그 무는 《금번사태에 대비하여》 대규모적인 무력공격을 단행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 0 2 9》에 기초하여 감행되고있다. 이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을 노렸던것이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이전시기에 비할바없이 침략적이며 도발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쌍방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한층 더 격화되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추구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북침전쟁이며 그들은 저들의 범죄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의 머리를 해킹전쟁의 제난을 들러주는것도 서슴치 않으려고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군사적긴장을

회대로 격화시키는 북침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에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수없다.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면하고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것은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증대시키고 나중에는 전쟁을 몰아들어서 나라의 평화적통일위업을 망치는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는 북남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해 합수민 또는 남북교류를 다 기울여왔다. 하지만 남조선보수당은 우리의 신의에 침략적인 의사와 공조하여 북침전쟁연습의 포성을 터뜨리는것으로 대담해나갔다.

북침전쟁연습은 남조선피괴들이 추구하는 동족대결정책의 반영이다. 보수당은 집권초기부터 우리의 대결을 작정하고 《비핵, 개방, 3 0 0 0》과 같은 대결전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체계적으로 악화시켜왔다. 그들이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민심이 두려워 마지못해 《대화》와 《진정성》에 대해 떠들었지만 그것은 뿌리깊은 동족대결관념과 북침기조를 가리우기 위한 한간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피괴호전파들은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폭언을 끊임없이 제치는 한편 그 무는 《금번사태》에 대비 요란스럽게 떠들며대면서 이른바 《대상통계계획》과 《통일대계협력연구》

와 같은 불순한 북침모략자들을 꾸며내고 그에 기초하여 반공화국대결전쟁소동에 피는이 되어 날뛰고있다. 보수당이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민족공공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노력들을 모두 뿌리치고 그 무는 《원칙고수》를 제창하면서 동족대결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가운데 여기에 있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반역당들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반대하고 전쟁도발에 의한 《제도통일》의 개공을 이루어오려는 야욕과 함께 그 방도를 의사와 함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찾고있다. 남조선호전파들이 미제와 작당하여 광란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해나간것은 북침야당의 두텁한 발로이다.

남조선에서 우리를 해치기 위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대화와 진정성이 없고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족의 운명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침략적인 의사의 물결대가 되어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발판으로 삼아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과 결렬한 투쟁에 의해 파란을 면치 못할것이다.

6. 1 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보수당의 대결전선정책들은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과 결렬한 투쟁에 의해 파란을 면치 못할것이다.

단 평

정치송장의 간특한 요설

열마진 《자유선진당》 대표 리희창역도가 남조선의 어느 한 방송에 나타나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서로 편대하여 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한나라당》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에 인쇄기를 고는 교양한 너두리를 놀아내었다. 이치는 야당세력들의 편대 움직임에 대해 그 무는 《합시성당》, 《성공할 확률이 낮다》, 《나니, 자기 당은 《이런 전략적인 편대에는 참여하지 않을것》이니 뛰니 허허 구구 반대해나갔다. 이것이 야당세력들의 《선거》편대활동을 파란시키 《한나라당》 배의 《선거》독판지기를 측면지원하려는 간특한 통계의 발로이라는것은 불보듯 면하다.

리희창이 국무보수세력의 우두머리라고 및 없이 거들떠거리며 회소리를 쳐대던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청평과리의 오물에 불과하다. 남조선의 민심은 보수집권세력에 등을 돌려놓고 있다. 그런데 이미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산 정치송장으로 략인된 리희창이 갑자기 방송에 나타나 쏠수없이 놀아젓을 보던 이자가 《한나라당》 축출없이 부러

대결 팡화신자들의 파렴치한 모략소동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욱더 광범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배의 《암도적승리》를 날조하여 《실용》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야합에 발맞고나섰으니 야야말로 제 버릇 개 못 준다 라는 속담고대르이다. 이런 정치송장에게까지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한나라당》의 처지 역시 참람대 가관라 해야 할것이다.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라도 잡는다 하지만 리희창이 따위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휘만 더 커질것이다.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에 대한 념원을 실현하자면 국무보수집단인 《한나라당》 패거리를 물론 그와 한층속인 리희창과 같은 역적배들을 한바리에 실어 력사의 심판장에 끌어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꾸미는 국무보수세력들의 추악한 공모결렬의 내막을 꿰뚫어보고있는 남조선민심의 목소리이다.

업 일 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고공과 실용소리가 끊기지 않고있다. 《4대강정비》 공사는 온갖 불법으로 얼룩져있고 하면서 《정부》가 수십억 원, 환경과, 농경지해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입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반전, 평화수호의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추종한 피괴호전파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을 단단히 뿌려박는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날로 더욱 격렬해지고있다.

매칠집 남조선의 남북 공동선언 대전실천대전선원들이 대건에서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파들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선언활동을 벌였다. 그들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 호전파들을 단죄하면서 대전지역의 각계층 시민들과 편대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도높게 벌려나갈것을 결의해나갔다.

민주로총 포항지부, 대구평통사, 안동평통사, 부산평통사, 《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와 피괴호전파들의 합동군사연습을 준렬히 단죄, 규탄하였다.

집회들에서 발언자들은 북에서의 상공작전과 작전수행능력을 높이는것을 목표로 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본질에 있어서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번의 군사연습을 통해 호전세력의 북

위대한 정치는 위대한 정치가장만이 펼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경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펼쳐실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치이다. 그것을 심장마다 새겨안고있는 남평양매테이기에 위대한 선군정치로 세계정치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그 세기 민족자주위업을 이끄는 경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풀어놓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한 자가 고하는 《미국의 정반대쪽에 있는 동방의 작은 땅, 이북은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한 세계주위세력이 감행하고있는 무한정한 전쟁책동과 막달아놓을 췌정에서 강력하게 연극하는것으로 하여 반체주정의 험난한 길을 가고있는 진보적인인류에게 승리의 리망을 비쳐주는 희망의 땅으로 거연히 속아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선군정치를 민족의 존엄과 평화, 정의수호의 보검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이북의 선군정치와 그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선군정치의 위력에 경탄을 금

치 못해하면서 이렇게 가속속 전쟁을 띠었다. 《지금 각계 민중은 실제 체험을 통해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이남민중을 보호해주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국애족의 참정치임을 피부로 절감하고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진호는 서울에서 있는 《민족의 총대》라는 제목의 시국강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의 존엄을 드높여주는 이북의 선군정치, 그로서는 이남민중이 받아안는 민족자본의 정신력을 무엇으로 헤아리랴. 천하무적의 선군정치가 없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온갖도가 불바다에 잠기고 이남민중은 전멸의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설로 선군정치는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다.》 북문제연구소 김진호는 《이북은 김정일장군님께서 불변불휴의 선군정도로 다져놓은 실용의 성채》라고 하면서 자기 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미국의 공세에는 강경대응으로 대담하는것이 이북의 길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주고있다. 남조선의 인내리틀은 《자주반포》는 《군사적침입을 경화》가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스라엘의 메바는침공사태는 메바는를 비롯한 많은 아랍나라 민중들에게 자주권이 없으나 중요인것이니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적침입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40일의 고공과 실용소리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9일 카를리코 교민들이 《4대강정비》야말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의 죽음을 초래하는것이라고 규탄하며 그 중지될수요하는 선언문을 발표할것을 비롯하여 종교계의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종교계가 이렇듯 한소리로서 《4대강정비》 공사를 반대하는것은 이것이 민족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기때문이라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4대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만조되나하고있는가 하는것은 공사가 강행되는 현장에 가보면 알수 있다고 하면서 곳곳에서 상천연의 대자연의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고 까맣았다. 남조선의 《21세기 대학생 연합》, 부산평통사, 부산민중연대, 범민련, 남측부산 부산경남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각지에서 규탄집회들을 열고 미제와 피괴호전파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단계를 넘어 미국이 대건에서 《평화》, 《비핵화》, 《평화》, 《비핵화》,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 호전파들을 단죄하였다. 《미군 나가라!》 등의 글이 새겨진 선전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모 두가 펼쳐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는 론평을 통해 미국과 피괴호전파들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1976년부터 감행되어왔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이라고 그 침략성을 날발이 더 광범하였다. 론평은 호전세력이 합동군사연습명칭을 1979년대에 즈음에 《연합진시중연습》으로 바꾸었으며 《전시작전통제반환》의 간판밑에 2008년부터 《키리졸브》로 이름을 바꾼데 비해 언급과 간판만 바뀌었을 뿐 모두가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4대강정비》 공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비난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는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4대강정비》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